

임방울 국악제 개막



30대 중년서 팔순 할아버지까지

‘얼씨구~’ 판소리 장기자랑

‘속대머리 귀신형용 적막감상’ 판소리 ‘춘향가’의 한대목인 ‘속대머리’가 울려퍼지며 관객들은 ‘얼씨구’ 잘한다 ‘멋지다’며 흥을 돋운다.

16일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임방울 판소리 장기자랑은 임방울 선생이 즐겨부른 ‘속대머리’와 ‘호남가’를 직접 불러 보는 대회였다. 제14회 임방울 국악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날 행사는 무대에서 소리를 하는 참가자들 뿐 아니라 객석에 앉아 추임새를 넣는 관객들까지 함께 어우러진 흥겨운 축제였다.

무대에 오른 이들은 아마추어 소리꾼들, 판소리가 좋아서, 임방울 선생이 좋아서 ‘귀동냥’으로 소리를 배운 사람들이다. 객석을 가득 메운 노인들 역시 ‘호남가’ 한대목을 너근히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이번 대회 참가자는 모두 70여명, 30대 중년부터 80대까지 연령대로 다양했다.

8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호방한 목소리를 뽐낸 배연석 할아버지(광주시 광산구 송정동)는 동갑내기 친구가 쳐주는 북 장단에 맞춰 ‘속대머리’를 멋지게 뽑아냈다.

멀리 신안군 하의면에서 올라온 강은상(78) 할아버지는 6·25 상의 용사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 “내 나이 스물 여덟에 몸을 다쳤는데 내 삶을 행복하게 해 준게 바로 ‘소리’였지. 임방울 선생 공연은 목포에서 딱 한번 봤는데 진짜 목소리 좋더라구.”

경남 창원에서 참가한 김환수(43)씨는 라디오 국악프로그램에서 우연히 듣게된 임방울 선생의 목소리에 반해 독학으로 소리를 배운 케이스.

“처음 임방울 선생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매력적이더라구요. ‘속대머리’를 100번 부르면 어느 정도 감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속대머리’ 테이프를 구해 가지고 수백번 따라 부르며 소리를 익혔어요. 오늘 은 총계 장려상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꼭 참여해야죠.”

지난해에 비해 참가자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는 임방울 판소리 장기자랑은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2회 광주일보문학상 수상 주원규 씨

“망상은 내 文學의 연료 탐욕의 시대 조롱했죠”

“한·일 관계 등 민감한 역사적 사안을 주제로 팩션(fact+fiction)을 써보고 싶습니다.”

“너를 심판하다”로 제2회 광주일보문학상을 수상한 주원규(31·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사진)씨는 작가로서의 포부를 이같이 밝히고, “부족한 작품을 긍정해주시는 광주일보와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주씨는 지난 2000년 건축전문지 월간 ‘건축인’에서 선정한 ‘간향건축문화상’에 입선하고, 200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 ‘칼’로 당선된 것이 작가 경력의 전부다. 소설집이나 장편소설을 출간한 적도 없다. 지금도 전기기사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많은 양의 글을 쓸 수 없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아무래도 직장 일에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5년 정도 일하다 보니 노후가 생겨서 퇴근 후 하루 2~3시간은 글 쓰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학상 수상작 “너를 심판하다”는 원고지 400매 분량의 중편소설이다. 대형 건물의 전기기사로 하루 종일 지하실에서 일하는 주인공 ‘나’가 망상에 망상을 거듭하다,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옮기게 되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그린 소설이다. 작품 곳곳에 이종격투기 이야기가 일종의 메타프로로 등장해 읽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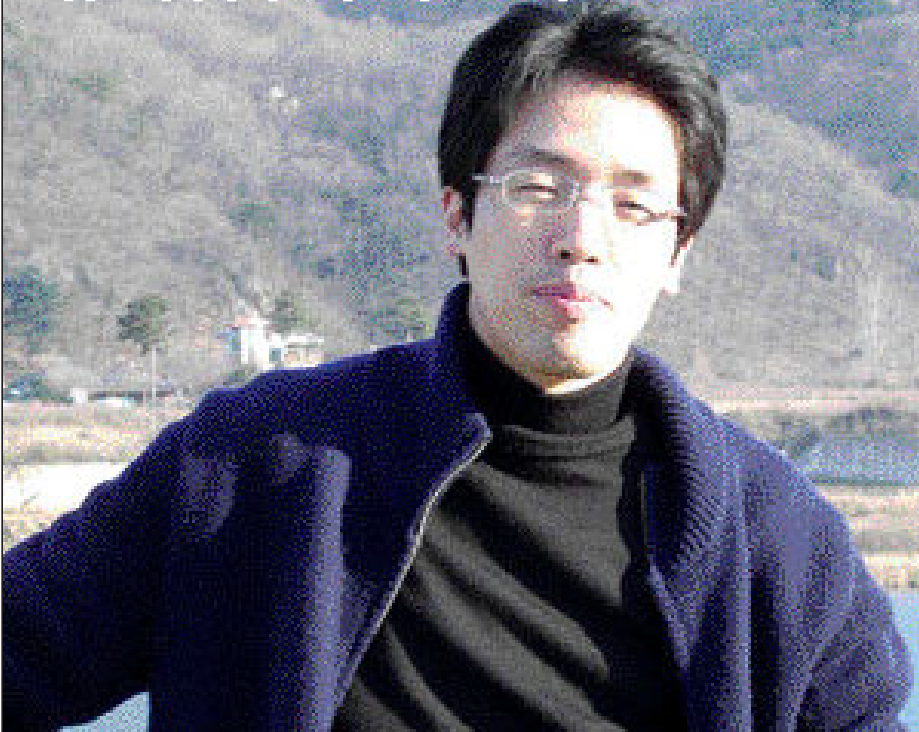
10년 넘게 일했지만 박봉에 시달리는 ‘나’는 구조적으로 빙딩 회사의 사장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나’는 사장이 ‘엘리베이터 걸’과 내연의 관계일 거라고 믿고 있다. 결국 주인공은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건물의 전원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중요성을 알려줬지만 사장의 부인이 추락사하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만다.

주씨는 “대학 졸업 후 6개월 동안 소설 속 주인공과 같은 일을 했었다”며 “당시 지하실에서 혼자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공상에 소비했고 이번 작품은 그때 구상된 것”이라고 말했다. 소설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3개월 동안 집필했다.

주씨는 광주일보 신춘문예 외에 광주와는 특별한 인연이 없지만 비엔날레 관람이나 출장 등을 이유로 1년에 한 두 차례는 꼭 광주를 방문한다고 한다. 주씨는 “이번 상을 계기로 자신감을 갖고 더욱 치열하게 글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전기기사 직장생활 이변 소설의 근간 민감한 역사적 사안 다룬 팩션 쓰고파



제2회 광주일보문학상 심사위원들이 지난 16일 광주일보사 회의실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중(평론가), 이지훈(소설가), 고재중(시인), 송은일(소설가)씨. /위직리기자 jrw@kwangju.co.kr

독특한 소재 문제의식 갖춘 수작

■ 심사평

기대보다 눈에 띄는 수작이 많지는 않았다. 시와 동시의 경우, 기성 시인들의 작품이라 언어를 다루는 솜씨에 있어서는 별반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러나 시가 오로지 언어를 다루는 기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투고된 대부분의 작품이 ‘문제의식의 부재’라는 결점을 공유하고 있었다. 주로 자연을 소재로 한 전통 서정시 유형의 작품들이 많았는데, 그저 ‘자연과의 합일’이나 ‘자연예찬’ 같은 구태의 주제로부터 진일보한 지점을 찾기는 힘들었다. 예외적인 경우로 ‘화실’ 외 2편의 작품이 있었으나, 이 역시 초현실주의적 자동기술법의 선부분 모방처럼 읽히는 데가 있었다.

소설과 동화의 경우도 사정이 그리 나은 편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작품이 구성과 문장에 있어서는 수준급이었으나, 작품 형식의 독창성, 주제의식의 깊고 있어서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어머니의 고난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문제의식의 규모부터 여타 작품들과 달랐다. 이 작품은 우리가 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잘 고안된 알레고리다. 18층 규모의 건물 맨 윗층에 사는 사장 아내의 무한한 식욕은 자본주의의 포식성에 대한 적절한 은유로 읽혔고, 십년 넘게 일하고도 연봉 1천600만원에 자족해야 하는 전기설비 기사의 지하실 반란은 더 이상 위협적일 것도 영웅적일 것도 없는 우리 시대의 ‘저항’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풍자로 읽혔다. 날마다 18층

사, 친구의 죽음과 연루된 유년기 체험, 아버지의 불륜 같은 테마는 우리 문학이 수십 년을 우려먹은 낯익은 것들이다. 만약 그런 소재를 택했다면 그에 걸맞은 자성과 혁신의 모습이 당연히 보였어야 마땅할 줄 안다. 그러나 이번에 투고된 작품들에서 그런 모습을 찾기는 힘들었다. 그런 이유로, “너를 심판하다”를 당선작으로 결정하는 데 심사위원 모두 망설임 이유가 없었다. 일단

의 사장 아내가 먹을 음식물을 날라다 주는 것으로 소일하는 엘리베이터 걸은 또 어떤가? 고장난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나는 그녀의 추락은 좌절된 계층상승 욕구에 대한, 혹은 계급의 장벽 넘어서기의 불가능성에 대한 유머러스한 상징 아닐 것인가?

게다가 이 작품은 ‘재미’라고 하는 미덕까지 갖추고 있었다. 절제된 단문들의 연쇄가 읽는 이로 하여금 긴장감을 잃지 않게 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서사를 진행시키는 힘이 있었다. 아울러

이중 격투기나 전기설비에 관한 작가의 지식 또한 거의 전문적인 수준이어서 이야기에 필적성을 더하고 있던 사실도 지적할 수 있겠다. 이 모든 장점들이, 문장의 전개가 다소 거칠고, 불필요한 설명이 종종 끼어 들고, 시점상의 변화가 적절치 못하다는 소소한 단점들을 다 제쳐두고, 네 심사위원 모두로 하여금 주저없이 이 작품을 당선작으로 뽑게 했다. 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낸다.

광주일보문학상 심사위원단

(평론가 김형중 대표 집필)

시·동화·소설 대부분 작품 구성과 문장은 수준급

재미·스토리 전개 탁월 망설임 없이 ‘너를’ 선정

■ 광주일보문학상은

지난 반 세기 동안 신춘문예를 통해 배출된 200여명의 문인들이 보다 왕성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광주일보가 제정한 문학상이다.

이번 제2회 광주일보문학상에는 소설·시·동화 등 33편의 작품이 응모했다. 문학상에는 ‘광주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문인들의 미발표

광주일보 신춘문에 등단 200여명 왕성한 창작활동 지원 위해 제정

표작’만이 응모할 수 있다. 심사는 전·현직 광주일보 신춘문예 회장이 이지훈(소설가), 송은일(소설가)씨와 외부인사로 시인 고재중씨, 평론가 김형중씨가 맡았다. 수상자 주원규씨는 상금으로 300만원을 받게 되며, 시상식은 내년 1월 2007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시상식 때 함께 진행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 (11)223-1140, 2210-1140-2225 (중주동 신촌점, 대인동 신촌점·리전)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 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 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 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공인중개사 ☎ 352-4545, 364-4545 (광주 시구 광동동 650-164-송원대사거리)	인애공인중개사 ☎ 011-642-0391	동부부동산건설(주) 투자상담 ☎ 010-7523-4568, 010-4628-5454 (금호동 미재우체국 옆)	하이링크 건설링 ☎ (대)383-5221, ☎ 011-609-5221 (상무지구 입구 구 상무대입구)	민유아·정적으로 방방곡곡부동산건설(주) 대표전화: (062) 371-0001 www.방방곡곡.com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 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 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 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최고의 주거단지 광천동 재개발지구 투자상담 (소액 투자 환영) ◎재개발 면적 -약 12만8천평 ◎재개발세대수 -약 6천2백세대 ●시공사● GS·삼성·대림 현대산업개발 금호·백산·대우	희집임대 ● 고급희집하실분환영 ● 희집으로 성공하실분 ● 1층 2층 130평 택자 42석 ●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 부근 ● 임대내용은 희집 보고 상담	일발물건 - 대우로 받은 아파트 긴급매매 - 문호중 송지트리뷰 34평형 (분양가 14,900만원) - 문호중 글로빌 38평형/분양가 18,200만원, 41평형/19,800만원/분양가 이하로 긴급처분/조종가 니주혁신도시 투자 상담 환영! 서구 새마을 다사랑병원 뒤편 지연복지 350평 -순환도로 인접/투자기회 양호 -매매가: 평당 70만원 안산동 대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인접 4,000평 -용도: 종합병원, 대형상가, 미트, 전시장 등 기어 -매매가: 평당 200만원(전체 80억원) 광주 유수동 현대빌딩 대로변 단지 330평 -주유소, 물류센터, 가든 직할 -매매가: 평당 320만원 광주 신일동 선운대지구 대로변 600평 임대안료 -주유소, 상가, 병원등 -매매가: 평당 230만원 서구 금호동 부영아파트 부근 4층상가 -단지 115평 / 건물 270평 -보증금 3억 / 월세 1,300만원/ -매매가 6억8천만원 서구 화정동 새마을부지 앞 6층 상가 -단지 113평 / 건물 430평 -보증금 3억 / 월세 1,300만원/ -매매가 17억 서구 매월동 유수동 대로변 1,000평(분할가) -주유소, 물류창고, 교회, 병원·노인복지등 -매매가: 평당 230만원 서구 매월동 새마을부지 대로변 250평 -주유소, 상가, 가든 직할 -매매가: 평당 330만원	투 지 ● 상무지구상업용지 (회사·숙박·병원·학원·식당등) - 120평 평당 1,000만원 - 600평 평당 750만원 - 670평 평당 900만원 - 680평 평당 850만원 - 500평 평당 750만원 - 278평 평당 1,400만원 - 100평 평당 850만원 ● 무인모델부지 - 합천지구 1,600평 평당 240만원 - 도곡역전 800평 평당 80만원 ● 공장 및 창고 - 원전사(원전) 부지 180평 평당 220만원 - 화성동 5,000평 지면·지하 10만평 - 미북동 상곡(대지) 900평 평당 170만원 - 미북동 상곡(대지) 900평 평당 150만원 - 삼기동 관리지역 1,200평 평당 350만원 - 매월동 자연녹지 3,000평 평당 160만원 ● 땅투자 - 망월동 개발제한(자연녹지)지역 1,724평 평당 90만원 - 매월동 2,300평 평당 120만원 - 홍남동 보전녹지 22만평 평당 35천원 ● 모빌 - 개실507개 매가 58억 - 개실337개 매가 26억 - 개실807개 매가 53억 ● 급히 구합니다 - 표면연습장 및 적합한 부지 - 입이 큰 땅수	구해드립니다 ▶ 팔아드립니다 병원, 학원, 공장, 아파트, 교회, 골프연습장 주유소 등 각종투자용 부동산을 구해드립니다.	법인 설립 목적 및 사업 내용 1.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4. 부동산 공/겸매 물건 현장 2. 부동산 계약 대행 및 관리분석업 3. 분양권리 및 컨설팅, 인허가 업무 대행 5. 부동산 자건속 시형 설립업 6. 부동산 국내외 투자 상담업 7. 각종 부대 사업 일체
			경매 투자 물건 - 치평동 7층 상가 -대지 120평 건물 560평 -개발 부지(지) 양호(수원지구 인접) -관객가 21억 최자가 15억 신가동 9층 사무건물 -대지 229평 건물 1,500평 -관객가 26억 최자가 6억 신가동 5층 상가 -대지 80평 건물 400평 -관객가 8억 최자가 4억 쌍암동 6층 상가 -대지 120평 건물 700평 -관객가 16억 최자가 7억 경/광역 투자 상담 환영 (공정, 상가, 대지 등)	법인 설립 목적 및 사업 내용 1.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4. 부동산 공/겸매 물건 현장 2. 부동산 계약 대행 및 관리분석업 3. 분양권리 및 컨설팅, 인허가 업무 대행 5. 부동산 자건속 시형 설립업 6. 부동산 국내외 투자 상담업 7. 각종 부대 사업 일체	법정 관리 ● 협찬한 관리로 공급하는 상태로 유지 관리해 드립니다. ● 상무지구 -전통 건설 협회 빌딩 -입무동 189평 -에스원 빌딩 지하 1층~6층 2174평(분할가) 퓨전식당, 뷔페, 노래방, 미용실,주점 등 -단독 상가 140평 회관, 유출 -센트럴 호텔, 콜럼버스 부근 식당, 주점, 호프, 밀식, 목욕업 340평, 280평, 180평, 120평, 88평, 45평, 37평(분할가) -사무실 업무용 등 230평, 171평, 164평, 100평, 80평, 67평, 40평 등 ● 동산지구 -사무실, 업무용 등 370평(분할가) ● 안산지구 -신속 5층 상가 분양 임대 특권지역	
			금매물 ● 금호지구 상가 매도 19억 7천만 연수리물 24% ● 삼성동 신산도로 주유소 허가 필 토지 매매 건 ● 매월동 농산물 공판장 부근 건축허가 필 900평 평당 130만원 ● 세화동 순환도로점 280평 평당 70만원 ● 상무지구 상업용 대지 평당 780만원 ● 상무지구 상업용 대지 평당 800만원 아파트부지 ● 서광구역 부근 작업중(49%), 시행사 상담 환영 급구함 ● 서구 매월동 유차부지 300평 ● 우익성 상가, 점포 ● 모델임대	★'방방곡곡'은 특별한 상호명으로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불전필 상담) 대표이사 이종현 010-3002-0099		